

# 마태 20

- 1.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.....1
- 2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심.....3
- 3. 왕께서 섬기러 오심.....4
- 4. 왕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심.....5

## 1.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

(마 20:1)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.

(마 20:2)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

(마 20:3)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

(마 20:4)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.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,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.

(마 20:5)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

(마 20:6)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? 하매

(마 20:7)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,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,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.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, 하니라.

(마 20:8)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,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, 하니

(마 20:9)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으니라.

(마 20:10)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

(마 20:11)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

(마 20:12) 이르되,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, 하니

(마 20:13)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, 친구여,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. 네가 나와 일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?

(마 20:14)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.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.

(마 20:15)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?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?

(마 20:16)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, 하시니라.

## 2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심

(마 20:17)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,  
 (마 20:18) 보라,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[아들]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 
 (마 20:19)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,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, 하시니라.

(막 10:32)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.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매 그분께서 다시 열둘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며  
 (막 10:33) 이르시되, 보라,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[아들]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.  
 (막 10:34)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,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, 하시니라.

(눅 18:31) 그 뒤에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, 보라,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[아들]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.  
 (눅 18:32)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하리라.  
 (눅 18:33)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,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, 하시되  
 (눅 18:34)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.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.

### 3. 왕께서 섬기러 오심

(마 20:20)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

(마 20:21)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,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?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,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, 하거늘

(마 20:22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,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?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, 하매

(마 20:2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. 다만 내 [아버지]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, 하시니라.

(마 20:24)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

(마 20:25)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,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

(마 20:26)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

(마 20:27)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.

(마 20:28) 이와 같이 사람의 [아들]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10:35)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선생님이여,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, 하매

(막 10:36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? 하시니

(막 10:37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, 하거늘

(막 10:38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.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?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? 하시니

(막 10:39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,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(막 10:40)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.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, 하시니라.

(막 10:41)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

(막 10:42)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

(막 10:43)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

(막 10:44)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.

(막 10:45) 사람의 [아들]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, 하시니라.

### 4. 왕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심

(마 20:29)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.

(마 20:30) 보라,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오 [주]여, 다윗의 자손이여,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니

(마 20:31)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오 [주]여, 다윗의 자손이여,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더라.

(마 20:32)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,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? 하시니

(마 20:33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[주]여,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, 하매

(마 20:34)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.

(막 10:46)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.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매오가 큰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

(막 10:47)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,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,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거늘

(막 10:48)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, 다윗의 자손이여,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더라.

(막 10:49)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, 안심하고 일어나라.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, 하매

(막 10:50)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

(막 10:51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?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, [주]여,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, 하매

(막 10:52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네 길로 가라.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,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.

(눅 18:35)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

(눅 18:36)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

(눅 18:37)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

(눅 18:38)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,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,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거늘

(눅 18:39)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, 다윗의 자손이여,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, 하더라.

(눅 18:40)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

(눅 18:41) 이르시되,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? 하시니 그가 이르되, [주]여,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, 하매

(눅 18:42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네 시력을 받으라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, 하시니

(눅 18:43)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[하나님]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[하나님]께 찬양을 드리니라.